

Gyeonggi-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3

Gimpo Tongjin Durenori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호

23

김포 통진두레놀이



農者天下之大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23^호

김포통진
두레놀이



무형문화 계승의 정신과 김포통진두레

지방무형문화는 지정학적 환경과 그 시대의 생활과 연관이 있다. 먼저 지리적 측면에서 김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반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반도는 태안반도, 웅진반도, 변산반도처럼 서해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한강의 관문에 있는 김포도 지리적 여건으로 김포반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반도 이외에 바다와 관련된 김포 주변에 있는 지명은 “곶(串)”이다. 김포의 대곶, 월곶, 북한 개풍군 지역의 인월곶, 강화 연미정이 있는 월곶에서 곶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지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포는 김포평야를 비롯하여 바다와 강이 있어 농사와 어업과 연관된 무형문화가 골고루 발달하였다. 농경생활과 관련된 무형문화는 통진두레놀이, 지경다지, 사우회다지, 하성농악, 대곶농악, 웅정리 농요, 동을산리 산신제, 북변리 도당굿, 용강리 용연과 보구곶리 기우제를 비롯하여 각 마을에 상여소리와 산신제가 있다. 이중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통진두레놀이이다.

강과 관련된 무형문화는 조강 치군패,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풍어제, 조강 용왕제 등이다. 이 중에서 강령포, 조강포, 마근포에서 성행한 치군패와 용왕제가 대표적이다. 선박운행과 어업 활동의 무사항행을 기원하는 용왕제는 당집(堂宇)에서 시작되어 조강에서 배를 타고 지냈다.

두레패에서 통진두레 놀이로

통진두레놀이는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가락이 주를 이루고 논갈이, 고사지내기, 모찌기, 모내기, 새참먹기, 물고싸움, 김매기 등 12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소품으로는 새 쫓는 도구를 비롯하여 용두레, 지게 등은 실제 사용하던 것으로 재현을 했고 복색은 황토를 이용하여 두레회원들이 직접 옷에 물감을 들이기도 한다. 두레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각 마을에서 두레패를 조직하여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였다. 마을마다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 지신밟기와 고사덕담을 하고 상모와 소고를 배우면서 두레놀이로 발전하였다.

김포의 대표적인 농경문화인 통진두레놀이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 뻘놓을 수 없는 사람이故윤덕현(초대 예능보유자) 상쇠다. 윤덕현 상쇠는 김포에 있는 각 단체나 학교와 마을에서 농악을 배우고자하는 시민과 학생에게 찾아다니면서 전수하였고 1997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할 때 상쇠를 맡았다. 이외에도 강경구(前 김포시장) 당시 통진면장을 중심으로 김재임(1대), 김인식(2대), 임명기(3대) 회장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주민과 당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지방무형 문화의 특징

무형문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같은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논에서 일을 하며 두레농악을 하고 마을 사람이 사망하면 상여소리와 회다지를 한다. 새롭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저녁에 모여 집터 다지기를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 마을 사람들의 안녕(安寧)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새벽에 지내고 포구에서는 안전한 어업과 선박운행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장구, 북, 태평소, 팽과리, 징 등 악기소리에 맞추어 소고와 제금으로 군무를 하고 10월 상달에는 풍요로운 마을을 기원하는 도당굿이 있었던 것이 김포무형문화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각 무형문화마다 별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두레도 하고 지경다지, 회다지도 했다. 통진두레놀이도 마찬가지다.

무형문화 계승의 정신과 통진두레

통진두레놀이보존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김포무형문화재는 통진두레놀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농경문화의 공통점을 모르고 오직 통진두레만 있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다. 두레는 공공문화 정신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공동문화의 공공성을 전수해야 한다. 전수자와 이수자를 배출할 때도 기능이 계승의 주요부분이나 농경생활에서 있었던 협업, 협동하는 두레정신을 오늘에 맞게 전수해야 한다. 무형문화의 전승은 선현들이 살아왔던 생활상이다. 종교, 학력, 인맥, 진보, 보수와는 무관하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다행히도 통진두레놀이는 조문연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존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무형문화를 보존하는 사람들이면 경험한다. 김포는 인구 7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포 정체성의 한축을 형성하는 무형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원형보존과 전수이외에 소고와 농요를 청소년과 시민이 쉽게 배우는 방법과 외국인도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김포에서 다른 무형문화를 보존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 협력하여 통진두레놀이와 더불어 다른 김포무형문화도 함께 보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물이 윗 논에서 아래 논으로 흘러가듯 내 것, 네 것, 이편, 저편, 편을 가르거나 고집하지 않고 지역에서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물꼬를 트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과거의 문화를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다듬어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김포시에 있다. 그것이 무형문화 계승의 정신이요 김포사람이다.

정현채

조강치군패 발굴자. 통진두레놀이 계보조사자. 김포지경다지놀이 발굴자

1 김포통진두레놀이의 역사 07

두레놀이
유래와 특징
계보 및 예능보유자

2 김포통진두레놀이의 편성과 복색 12

3 김포통진두레놀이 12마당 13

4 김포통진두레놀이 농요 17

모찌기 소리(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모내기 소리(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김매기 소리(방아소리, 상사소리, 몸돌소리)
풍년 고사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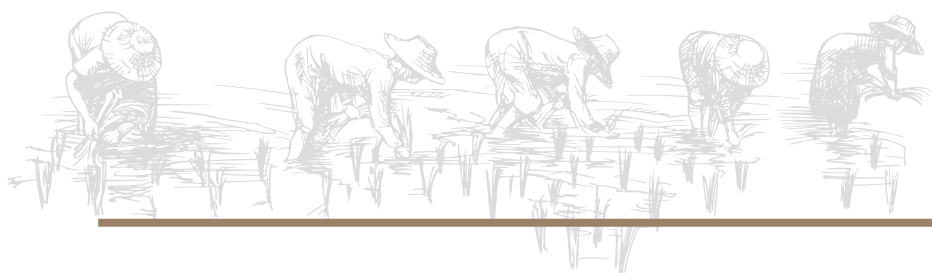
5 김포통진두레놀이 농악가락 21

인사굿, 사채, 삼채, 삼동지, 일채, 이채, 칠채

6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역대 회장 24

7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회원 25

8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연혁 28



1 김포통진두레놀이의 역사

김포통진두레놀이는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행해지던 농사소리, 농악장단, 농사동작 등이 어우러진 농경사회의 마을 공동체를 표현한 무형문화유산으로,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먹고, 김을 매고, 수확을 하는 생업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대변해주는 문화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는 예로부터 김포평야를 중심으로 논농사가 발달하였고 그에 따른 두레활동이 왕성했으나, 농업의 기계화가 진행되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두레조직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역민을 중심으로 김포지역의 농사소리와 농사법을 수집·정리하였고, 1985년 윤덕현 상쇠를 중심으로 통진면의 각 마을 주민들이 두레농요 재현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6년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김포 두레농요'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1997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통진두레놀이'로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유래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공동작업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두레'라고 한다. 대개 모심기, 김매기, 나락베기 그리고 보(沺)막이 등의 일이 두레감이었다. 두레에는 보통 한집에 한 사람씩 참여하였고, 수총각이라 불리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공동작업이 진행되었다.

공동 작업에서는 농악을 갖추고 농요를 합창하며 마을을 상징하는 농기는 논두렁에 꽂아놓고 한다. 이 농기는 신성하게 여기어 논두렁을 지날 때에는 큰 벼슬아치라도 말에서 내려 농기 앞을 걸어가야만 했다고 한다.

김포는 한강과 임진강에 접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던 지역(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으로 농업이 발달하였다. 김포통진두레놀이도 오래전부터 기름지고 광활한 김포평야와 자연을 벗하는 선인들의 심성 속에서 자라나 해학과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행해져 왔으나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전래되지 못하고 대부분 잊혀 있었다.

광복 이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두레를 조직하여 농악을 울리면서 흥겹게 농사를 짓던 풍속이 되살아났으나 60년대 후반부터 기계와 농약의 사용으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일부 마을에서 농사철이 아니라 명절에 지신밟기 또는 단오절 등 마을행사 때나 농악패가 구성되어 즐기는 놀이로 변천되었다.

그러한 관계로 90년대에 이르러 당시 생존해 계시던 어른들과 상공(상쇠), 선소리꾼을 찾아 우리 고장에서 옛날부터 불리던 농사소리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김포통진두레놀이를 재조직하여 재현하게 되었다.

특징

모심기와 논김을 맬 때, 마을마다 두레가 구성되어 등걸이 잠뱅이 차림에 우장, 호미 등을 갖추고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에 맞추어 일터로 나간다. 일터에 나온 농군들은 논두렁에서 한마당 놀이를 하고 농사일을 하게 되는데 힘든 농사일을 잊고자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농부들이 소리를 받으며 일을 한다.

농사소리(농요, 노동요)의 가락은 농사일의 성격에 따라 대개 긴 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일체 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농사소리 노랫말은 알려져 있는 것 이외에도 그때마다 만들어진 것으로 해학과 풍자적인 요소가 많아 농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 김매기 소리는 3가지로 방아타령, 상사소리, 몸돌 소리로 구성되었다. 부르는 방법은 선소리꾼의 메기는 소리와 농부들의 받는 형식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길고 구성진 가락의 긴 방아로 시작하여 상사소리를 통해 힘든 것을 잊고자 빠르게 부르고 일의 마무리를 위한 몸돌 소리로 맺는다.

이렇듯 농사소리(농요, 노동요)는 그 당시의 농경사회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악기 장단에 맞춰 농사를 천직으로 삼았던 농민들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농사소리는 선인들의 삶과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김포통진 두레놀이 계보*

*
우리동네이야기
102p (2007. 정현재)

1대 이기옥(1905-1979) 상쇠는 대곶면 대벽리에서 출생하여 20세에 결혼 후 웅정리로 이사를 하였다고 아들인 이강락(1931년생)에 의해 전해진다. 웅정리에 이사를 오기 전에는 함박곶이에서 거주하였으며, 웅정리에서 상쇠로 1919년부터 1950년까지 활동을 하였다.

윤덕현과 함께 활동한 홍기하(1938년생)에 의하면 이기옥이 상쇠를 맡았을 당시에는 윤덕현의 형인 윤덕창(1918-1977)이 부쇠를 맡아 활동을 했으며, 이기옥 이후에는 부쇠를 맡았던 2대 윤덕창이 상쇠를 맡았다. 부쇠는 1950년 6.25 전에 수참리에서 웅정리로 이사를 한 김홍선이 맡았다.

그 후 이병렬(1928-1977)이 웅정리로 이사를 오면서 상쇠에는 3대 이병렬, 부쇠는 김홍선, 북에는 홍기하, 상법구에는 윤덕현이 맡아 활동하였다. 이병렬의 부인 김옥례에 의하면 이병렬은 황해도 해월면 웅정리 출신으로 1950년 6.25 이후 인천으로 이주하였으며, 1950년 전에는 황해도 연백에서 각종 대회에 나가 송아지를 상으로 받아올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병렬은 1960년대 통진읍 웅정리로 이사를 오면서 상쇠를 맡았고, 이때부터 상모와 소고를 마을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점차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병렬은 윤덕현 등과 겨울에는 절 걸립을 다니는 등 영역을 김포에서 서울과 경기도 쪽으로 확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병렬씨 사후에는 4대 윤덕현(1934~2008)씨가 상쇠를 맡았으며 현재는 5대 조문연(1958)이 상쇠를 맡고 예능보유자로 계승하고 있다.

김포통진 두레놀이 예능보유자



윤덕현 (1934 ~ 2008)

1934년 김포군 통진면 웅정리 출생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초대 예능보유자
(1998.4.13. 인정)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던 마을에서 두레소리를 보고 들으며 성장기를 보냈고, 군 제대를 한 후에는 마을패를 규합해 웅정 농악대를 창단했다. 그는 몸에 배인 끼를 주체할 수 없어 마을을 떠나 전문잡이들과 전국을 유람하기 시작하여 떠돌다가 1982년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였다. 그 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김포군의 각 학교를 다니며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두레소리를 전수했다.

1990년도에는 자신이 창단한 웅정농악대를 통진두레놀이로 개명, 1995년 경기도 민속경

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년 뒤인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40년 넘는 세월을 오직 한길로만 정진한 결과였다.

1998년에는 '김포통진두레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며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조문연 (1958)

1958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출생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2대 예능보유자
(2016.11.8. 인정)

농사소리와 농악장단에 입문하게 된 첫 번째 사연은 윤덕현 예능보유자를 만나게 되면서다. 1978년 4-H 단체 활동을 하면서 농악경진대회 출전을 위하여 당시 김포지역에서 활동하던故윤덕현에게 처음으로 농악지도를 받았고, 1980년대에 마을에서 농사일을 할 때에 어르신들의 권유로 농사소리를 하기 시작해 마을에 초상이 날 때는 상여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소리꾼으로 성장했다.

1995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통진두레농요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그 이듬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하여 본격적인 보존회 설립을 추진하고 단원을 모집하면서 통진두레놀이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때부터故윤덕현의 지도 아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소리와 농악장단을 배우게 되었다.

'통진두레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보존회 활동을 하며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여러 초청공연과 자체 발표회를 통하여 보존·전승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 중 2008년 12월故윤덕현이 별세하며 보유자 공석이 생기게 되고, 그 이듬해인 2009년 전수교육 보조자 심사를 통해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다.

전수교육조교로 지정 후 매주 보존회원에게 농사소리 및 농악장단, 농사동작에 대한 전수를 하면서 김포통진두레놀이 12마당의 전반적인 시연 및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이외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국두렛소리총회발표회 및 각 지방 무형문화재 초청 시연과 김포통진두레놀이 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무형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승하는데 노력해온 결과, 2016년 11월 8일 2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2 김포통진두레놀이의 편성과 복색

편성

편성은 깃발, 치배, 농사 연희자들로 구성된다. 깃발은 영기 1쌍, 두레기, 농상기(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 오방기(靑龍(청룡)·白虎(백호)·朱雀(주작)·玄武(현무)·騰蛇(등사), 20여 개 이상의 마을기 등 모두 40여개가 따른다. 치배로는 태평소, 팽과리, 제금, 징, 북, 장구, 소고 등이 구성되고, 연희자는 섰님, 농군, 새참꾼(아낙), 어린이, 각설이, 소(牛) 등이 등장하며 총 편성인원은 80명 이상이다.

편성 대열

①영기 ← ②오방기 ← ③두레기 ← ④농상기 ← ⑤마을기 ← ⑥태평소 ← ⑦팽과리(상쇠·부쇠) ← ⑧제금 ← ⑨징 ← ⑩북 ← ⑪장구 ← ⑫소고 ← ⑬농군들(소품) ← ⑭소몰이(초립동),쟁기,씨래,용두레 ← ⑮새참팀 ← ⑯각설이, 아동 순으로 입장한다.

복색

기수와 치배, 농군은 위아래 민복을 입고, 나머지 연희자는 역할에 맞는 복장을 한다. 두레놀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 못줄, 쇠스랑, 싸리 빗자루, 우장, 부뚜, 못자리, 절구, 노적가리, 용두레, 밀대, 바가지, 광주리 등 다양한 소품이 필요하며, 농군을 비롯한 농사 연희자의 역할에 따라 지게에 지거나 들고 나온다.



영기



오방기



마을기



두레기

3 통진두레 12마당

첫째마당

입장

삼채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며 인사굿으로 시작한다.
영기, 오방기, 마을기 등 40여개의 깃발을 앞세우고 치배, 섰님, 농군, 새참꾼, 어린이와 각설이, 소(牛) 순서로 농악장단에 맞춰 입장한다.
입장하는 동안 농군들 일부는 마당에 논을 형태를 만들고 둘째마당에 등장하는 논갈이와 씨레질 장면을 준비한다.



둘째마당

논갈이 및 씨레질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소에 멍에를 얹어 열었다 녹은 땅에 논갈이를 하는 쟁기질, 소에 씨레를 달아 논바닥을 고르는 씨레질, 못자리에 물을 퍼 올리는 용두레질을 하며, 이때 섰님은 논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마당

볍씨 뿌리기

씨레질을 한 후 못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재를 뿌리고 밀대질을 한 뒤, 농군들이 볍씨를 뿌리고 그 뒤에 서는 소고놀이로 볍씨뿌리는 동작을 한다.
아울러 흥겹고 빠른 삼동지 가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못자리 파종이 잘되어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고사덕담을 한다.

“경기도를 마련하고 통진을 마련할 때 / 벼라도 심어 보세 무슨 벼를 심어보나 (중략) 여기저기다 심었으니 만사가 대길하고 소원성취가 발원이라 / 년년이 풍년되게 해 주십소사”



넷째마당
고사지내기

논주인은 못자리에서 고사를 지낸 후 고사떡을 먹으면서 풍년을 기원하며 단합을 하는 장면이다.



일곱째마당
새참먹기

아낙네들이 새참을 들고 와서 논 바깥쪽에 준비하면, 우두머리 되는 사람의 구령으로 일을 멈추고 새참을 먹는다.
새벽부터 시작한 모내기 작업 중 새참시간은 간단한 먹거리와 막걸리, 그리고 농악놀이로 노동의 피로를 씻고 충전하는 시간을 표현한다.



다섯째마당
모찌기

농군들이 소를 앞세우고 나와 모찌기와 논갈이를 하는데, 이때 농군들은 선창자와 후창자로 나뉘어 모찌기 소리를 한다.

(받는소리) 찢네 찢네 나도 한 춤을 찢네
(메기는소리) 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찢보세 /
농사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
오늘날은 여기서 놀고 내일 날은 어디 가서 노나 /
일출 동방에 해 돋으니 한 춤이라도 빨리 찢세



여덟째마당
물고싸움

새참을 먹는 도중 남의 논물을 자기 논으로 대려다들켜 종가래꾼끼리 물고 시비가 붙은 것이 결국에는 논 주인끼리의 싸움으로 번지고 다시 마을 간 두레싸움으로 번지는 장면이다.
상대 마을 두레기의 평장목을 먼저 뽑는 쪽이 승리하는 것을 끝으로 나중에는 두 마을 두레패가 어우러져 화합의 한마당을 벌인다.



여섯째마당
모내기

모를 일정한 간격으로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못줄을 쓰지 않고 농부들의 감각으로 모내기를 하며 소리를 한다.

(받는소리) 하나 허니 하나 둘이로다
(메기는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태어나 농부 농사 안하고 무엇 하나 /
농자는 천하지 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
모를 내세 모를 내세 마늘모로 모를 내세 /
봄 들었네 봄 들었네 건너 산천에 봄 들었네 /
푸른 것은 버들이요 누른 것은 피꼬리라 /
황금같은 저 피꼬리 임진란을 만났던지 /
황금 갑옷 들춰 입고 양유간을 왕래하네



아홉째마당
김매기

두레싸움이 끝나면 두 마을이 다시 힘을 합쳐 김매기를 한다. 김포에서는 김매기를 3번 하는데, 원의 형태를 만들어 진행한다. 이때 선창자와 후창자로 나뉘어 김매기 소리를 하는데 <방아소리>, <상사디소리>, <몸돌소리>의 순서로 부르며, 각각의 후렴은 아래와 같다.

“에헤 에헤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가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에렐렐 상사디오”
“에이여라 몸돌려”



열번째마당
벼베기

논의 벼가 익으면 허수아비를 세우고 새끼줄로 만든 채찍으로 바닥을 치며 새를 쫓는다.. 농군들은 벼를 베고, 농부들은 벤 벼를 탈곡하기 쉽게 모아놓으며, 소 등에 싣고 나른다.

풍년을 즐겨워하는 흥겨운 농악 가락이 이어지는데, 삼채 가락과 삼동지 가락을 번갈아가며 연주한다.



열한번째마당
탈곡하기

벼를 벤 후 털어 떨어진 낱알의 수염을 도리깨질로 다듬고 부뚜와 키를 이용하여 벼 낱알을 고른다.



열두번째마당
섬쌓기

섬을 저울에 달아 만들고 논 주인에게 섬을 들고 가며, 노적가리를 만들어 탈곡한 곡식을 넣는다. 마지막으로 농악장단을 치며 마무리한다.



모찌기 소리
(메기는 소리)

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찌어보세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오늘날은 여기서 놀고 내일날은 어디 가서 노나
일출 동방에 해 돋으니 한 춤이라도 빨리 찌세

여	러		분	들		농		부	님		들
모	들		이	나		찌	어		보		세
노	웅		자	는		천	하	지	대		본
농		사	밖	에	에에	또	이	이있	는		가
오	늘		날	은		여	기	서	노	을	고
내		일	날	으은		어디	가	서	노		나
일	출		동	방	에	해		돋	으		니
하	안	춤	이	라	도	빨	리	이이	찌		세

(받는소리)

찼~네 찼~네 나도 한 춤을 찼네

찼	-	-	네	-	에	찼	-	어엇	네	-	-
나	도	-	한	춤	을	찼	-	어엇	네	-	-





모내기 소리
(메기는 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태어난 농부 농사 안하고 무엇하나
농사는 천하지 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모를 내세 모를 내세 마늘 모로 모를 내세
봄 들었네 봄 들었네 건너 산천에 봄 들었네
푸른 것은 버들이요 누른 것은 껌꼬리라
황금길은 저 껌꼬이 임진란을 만났던지
황금갑옷 들춰입고 양유간을 왕래하네

여	보		시	오		농		부	님		들
이		내	말	씀		들	어	어어	보		소
이	세		상	에		태	어	난	농		부
농		사	안	하	고	무	엇	을	하		나
노		웅	사	는	으은	천	하	지	대		본
농		사	밖	에		또	이	이있	는		가
모	를		내	세	에에	모	르	으을	내		세
마아		늘	모	로	오오	모	르	으을	내		세
봄	드	으을	엇	네	에에	봄	드	으을	엇		네
거언		너	산	천	에	봄	드	으을	엇		네
푸	르	으은	것	으	으은	버	드	으을	이		요
누으		른	것	으	으은	껌	꼬	오오	리		라
황	그	으음	같	으	으은	저	껌	에에	꼬		리
이임		진	란	으	으을	만	나	아앗	더언		지
황	그	으음	갑	오	오옷	들	취	어어	입		고
야양		유	간	으	을	왕	래	에에	하		네

(받는소리)

하-나 허-니 하나 둘이로다

허			나아		아아	허		어	니		
하아	나		둘	이	이이	로오		오오	다		

김매기 소리
(방아소리 -
메기는 소리)

종구도 또 종구나 금실금실 잉어들아
운양의 감바위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서
에루화 너 여기 왔느냐

종			구	도	오오	또	조	웅	구		나
금		시일	금	시	이일	잉	어	어어	들		아
운	양	의	감	바	위	어	디	다	두	고	
너		만				홀			로	서	
에	루	화	너	여	기	왔		느	냐		

(방아소리 -
받는 소리)

에헤 에헤요오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가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에	-	-	헤	-	-	에	-	헤에	요	오	-
어	어	라아	우	겨	라	방	아	로오	구	나	-
나아	니	가아	난	-	시일	나아	니	로오	구	나	-
니	나	노	방	아	가	좋	-	-	소	-	오

(상사소리)

얼렐렐 상사디아

어		얼	렐		렐	상		사아	도오		야
---	--	---	---	--	---	---	--	----	----	--	---

(몸돌소리)

에헤여라 몸돌려

에		헤	여		라아	몸		도올	려		
---	--	---	---	--	----	---	--	----	---	--	--

풍년 고사덕담

천지우주는 하늘 되고
지구조차 땅 생기니
삼강오륜이 으뜸이다
국태민안 봄운전에
시하연풍 년년이 돌아든다
이씨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학을 불러 대궐 짓고
대궐앞에 육조로다

오용문 하각산 팔도 각읍을 마련할 때
서울시를 마련하고 통진을 마련할 때
벼라도 심어보세 무슨벼를 심어보나
김포통진에 밀달 여주 이천에 자차벼
꼬리가 붉어라 다마금 찰벼라도 심어보세
무슨찰을 심어보나 껍적푸드득 쟁기찰
울긋불긋 대추찰을 여기저기다 심었으니
만사가 대길하고 소원성취가 발원이라
년년이 풍년되게 해주십시오



5 김포통진두레놀이 농악가락

인사굿

쇠	갱	갱		갱	갱		개개	갱	갱	갱		깅
장구	덩	덩		덩	덩		더더	덩	덩	덩		딱
북	둥	둥		둥	둥		두두	둥	둥	둥		딱
징	징			징			징			징		

사채

내는 가락	개개	갱	갱	갱		갱	갠	지	갠	갱		갱
쇠	갠지	갠지	갱	갠지	갠지	갱	갠지	갠지	갱	개개	갱	갱
장구	덩	따따	궁따	쿵	따따	궁따	쿵	따따	궁따	쿵	따	쿵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징	징			징			징		징			

삼채

쇠	갠	지	갠	갠	지	갠	갠	지	갠	갠	지	갠
장구	덩		따	궁	따	구	쿵		따	궁	따	구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징	징											

삼동지

쇠	갠		지	갠	지	개	갠	지	개	개	갱	
	개	갱		갠	지	개	갠	지	개	개	갱	
장구	덩			덩		따	쿵		따	궁	따	
	더	덩		덩		따	쿵		따	궁	따	
북	둥		두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둥	
징	징											
	징											

일채

쇠	갱	그	당	그	당	그	당	그
장구	덩		덩		궁	따	쿵	
북	둥		두		둥		두	
징	징							

이채

쇠	갱		개	개		개	갱	
장구	덩		따	따	궁	따	쿵	
북	둥		두		둥		두	
징	징							

칠채(1)

쇠	갱		개	갱		갱		개	갱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개	갱								
	갱		갱		개	갱		꽤				
장구	덩		더	덩		덩		더	덩			
	덩		더	덩		더	덩		더	덩		
	덩		더	덩								
	덩		덩		더	덩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딱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칠채(2)

쇠	갱		개	갱		갱		개	갱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갱		개	갱								
	갱		갱		개	갱		개	갱			
장구	덩		더	덩		덩		더	덩			
	덩		더	덩		더	덩		더	덩		
	덩		더	덩								
	덩		덩		더	덩		더	덩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두	둥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6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역대 회장



1대 회장 김재임
(1997년)



3대 회장 임명기
(1999~2003년)



5대 회장 심예섭
(2008년)



8대 회장 한일석
(2022~현재)



2대 회장 김인식
(1998년)



4대, 6대 회장 이진민
(2004~2007년/2009~2015년)



7대 회장 이준영
(2016~2022년)

7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회원



한일석 회장



조문연 보유자



윤병선 사무장



이미숙 간사



김우식 이수자



문경애 이수자



박정이 이수자



변희찬 이수자



우정진 이수자



이선화 이수자



이재범 이수자



정미영 이수자



신현임 이수자



장미선 이수자



전근수 전수장학생



강성천



고경찬



고옥선



공완순



김선미



김정숙



김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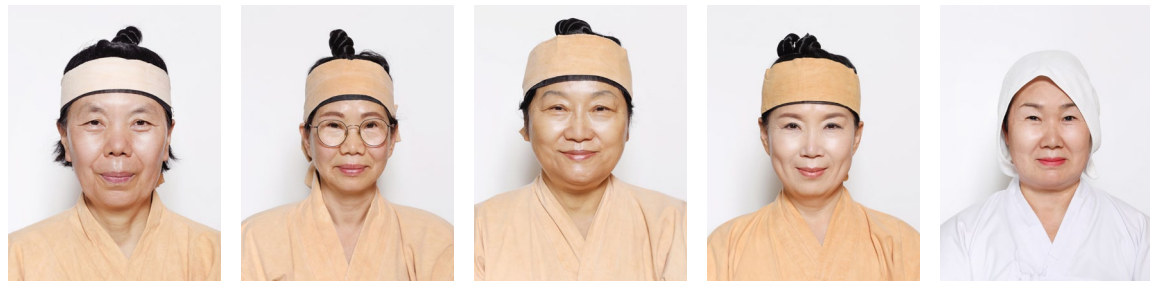
남궁국



노복연



박명순



박명옥

박수호

백기화

신미경

오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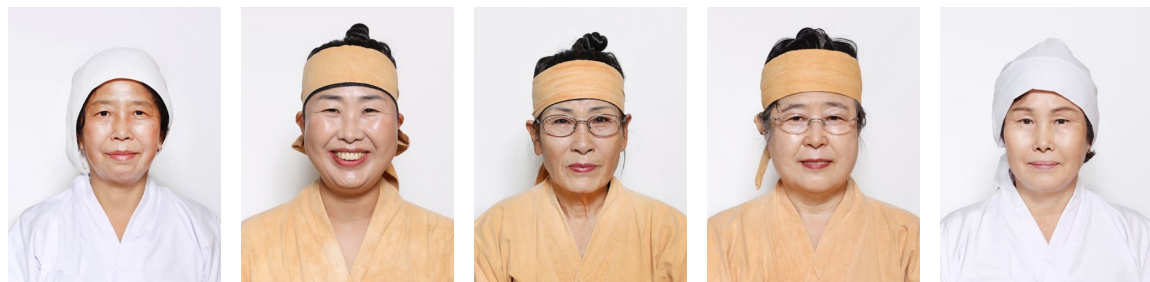
윤병복

윤영자

윤인희

이덕수

이동용



이봉옥

이성희

이순애

이순옥

이영애



이용길

이원숙

이원호

이은자

이정임



이종호

이추례

이춘임

이화순

이형재



진경화

정현식

주강노

최병삼

최영애



최재순

최정애

최희수

한순애

홍순모



홍승숙



1985년 이전

마을단위 두레놀이 조직

1985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농악놀이 출전
(종합3위 입상)

1986년 9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옹정리)

1987년 8월 88올림픽 시연 및 한강 이태원 축제 참가

1990년 서울 마포 새우젓 배 민속놀이 참가

1993년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1994년 김포군 제11회 금파문화예술제 시연 참가

1995년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1997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1998년 4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등록
10월 제3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연
(경남 밀양)

1999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참가(경기 부천)

2000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참가(경기 양평)

2001년 김포시 제1회 신축국악공연 참가
김포시 제1회 동면 농악경연대회 참가 시연

2002년 6월 2022년 월드컵 응원전 참가
12월 송년 국악 대공연 참가

2003년 2월 두레소리보존회 제19회 정기총회 및
발표회 개최

2004년 6월 두레날 단오행사 시연(가현운동장)
9월 제21회 김포문화예술제 가장행렬 시연
10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축제 시연

2005년 2월 김포 관내 지신밟기행사 참여
3월 전국두레소리 총회행사(충북 홍성)
5월 청소년 모내기 체험학습(두레답)
6월 두레날 기념 단오행사 시연(조각공원)
9월 제22회 김포문화예술제 가장행렬 시연

10월 경기도문화재 축제 시연(부천 중앙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풍물공연

2006년 2월 김포관내 지신밟기행사 참여
3월 전국 두렛소리총회 참여(영암)
5월 청소년 모내기 체험학습(두레답)
6월 두레날 기념 단오행사 시연(조각공원)
7월 평화의 소 영결식 참여
9월 김포 뱃길축제 찬조출연(감정동 옹주물)
10월 김포문화예술제 가장행렬 시연
11월 김포농산물 유통홍보 참여(서울 영등포)

2007년 2월 김포관내 지신밟기 행사
3월 전국두렛소리 총회 시연(경기 일산)
4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입장식 출연(경기 수원)
양촌 산업단지 준공식 시연(김포시 양촌면 소재)
5월 부평 풍물 축제 공연(경기 부평)
6월 두레날 기념 단오행사 시연(조각공원)
10월 김포시 금쌀홍보 공연(하성 봉성리)
김포문화축제 시연(걸포중앙공원)
김포문화예술제 시연 및 공연(걸포중앙공원)
김포 항공단지 준공식 공연 참가(대곶)
11월 김포국악단 정기공연 참가

2008년 2월 김포 관내 지신밟기 행사 참가
4월 상공회의소 기공식 공연
김포통진두레문화센터 개관식
5월 함평 나비축제 시연
김포-일산대교 개통식 공연
대명항 축제 참가
6월 단오제 행사
10월 김포예술제 참가
11월 통진읍민의 날 행사 공연

2009년 2월 김포 관내 지신밟기 행사 참가
3월 전국두레소리 총회공연(홍성)
4월 김포시민의 날 식전 시연
통진두레문화센터 1주년 개관 기념식
5월 농경문화 청소년 모내기행사

부평축제 시연
6월 두레날 기념 단오행사
구미 발갱이 들소리 보존회 초청 공연
8월 통진도서관 준공식 공연
9월 KBS ‘체험 삶의 현장’ 촬영
통명농요보존회 초청공연(경북 예천)
12월 김포통진두레 놀이 발표회 및 총회

2010년 2월 김포 관내 지신밟기
전국두레소리 총회 공연(경북 구미)
4월 통진읍 체육대회 식전 공연
5월 농경문화 청소년 모내기 행사(도사리)
6월 제12회 두레날기념 단오 행사
9월 경기문화초청공연(임진각)
10월 제1회 가을걷이 한마당축제
(가마솔 밭짓기 경연대회)
11월 통진두레문화센터 2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

2011년 4월 통진두레문화센터 3주년 기념식 발표회
5월 청소년 모내기체험 행사
6월 제13회 단오행사 및 전국두레소리 발표회
(사우문화체육광장)
9월 바르게살기 체육대회 초청공연(중앙공원)
10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공연(중봉축제)
제2회 가을걷이 가마솔 밭짓기 경연
11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임진각)

2012년 5월 전통 모내기 한마당 행사
김포 중봉문화재 시연
6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
(수원월드컵경기장)
여수세계박람회 공연
7월 예천 바이오 엑스포 공연
10월 2012 대한민국 전통 연희 축제 공연
제3회 풍년 가을걷이 가마솔 밭짓기 경연

2013년 2월 통진읍 개청 30주년 식전 공연
3월 수영 민속 고적 보존회 초청공연

5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경기도 박물관)
10월 제4회 풍년 가을걷이 가마솔 밭짓기 경연
11월 ‘아스라이 아라리 통진아라리’ 공연

2014년 9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시연(남한산성)
구미 발갱이 들소리 보존회 초청출연
11월 김포통진두레놀이 12마당 시연 및
제5회 가마솔 밭짓기 경연 한마당

2015년 4월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꽃전시회 공연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부 통수식 공연
9월 상주민요보존회 초청공연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수원화성)
11월 ‘아스라이 아라리 통진아라리’ 공연

2016년 1월 김포시 시민과의 대화 초청공연
2월 통진읍 안녕 기원제
4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폐회식 공연
4월 농어촌 공사 통수식 식전 공연
8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일산 킨텍스)
10월 통진읍 체육대회 식전 공연
통진시장번영회 초청공연
11월 김포통진두레놀이 이야기 한마당

2017년 3월 시민의 날 식전 농악 공연(김포아트홀)
5월 홍성결성농요보존회 초청공연
중봉축제 시연공연(사우문화체육광장)
9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광명종합체육관)
민속예술경연대회 폐막식(김포공설운동장)
10월 김포통진두레놀이 12마당시연 및
가마솔 밭짓기 경연 한마당
11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연합회 학회 세미나
(통진두레문화센터)

2018년 5월 홍성결성농요보존회 초청공연
6월 단오제 행사
7월 구미발갱이소리보존회 초청공연
9월 김포문화재단 ‘마당에서 놀자’ 공연
(통진두레문화센터)

10월 김포통진두레놀이 12마당 시연 및
제9회 가마솥 밥짓기 경연 한마당
11월 전국두레소리 총회 참석
(서울마들농요체험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안산 문화의 전당)

2019년 4월 통진읍 벚꽃축제 초청공연
5월 흥성결성농요보존회 초청공연
6월 단오제 행사
안동저전농요보존회 초청공연
9월 예천공처농요보존회 초청공연
10월 전국두레소리 총회 참석(서울이북5도청사)
12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경기 부천)

2021년 2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비대면)
5월 모내기 행사(비대면)
6월 단오제 행사(비대면)
10월 문화재청 행사(비대면)
11월 경기도 인간문화재 축제(비대면)

2022년 2월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이수자 심사
6월 김포문화재단 공동주최 '통진두레단오제'
김포 통진 한마음 축제 공연
7월 '김포 명인명무전 7인, 7색' 공연

김포 통진두레놀이 홍보전시관

통진두레문화센터 1층에 마련된 전시공간으로 '김포통진두레놀이'의 역사와 12마당, 시연 소품, 전통농기구 등 다양한 유물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홍보관 내에 마련된 영상자료실을 통해 '김포통진두레놀이 홍보영상' 관람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23 호

김포통진 두레놀이

